

잠녀의 삶 역사와 문화가 되다

중국 길림성 거주 제주출신 김순덕 잠녀 할머니 제4회 해녀축제 참가
강제 징용 피해 청진행...16살 처음 사용한 '눈'아직도 소중히 간직해

등록 : 2011년 10월 14일 (금) 17:13:15
최종수정 : 2011년 10월 14일 (금) 17:13:15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중국 길림성 장춘시, '제주 출신 잠녀' 김순덕 할머니(89)의 현 주소다. 어떻게 그 곳까지 갔을까. 김 할머니는 "어떻게 그 얘기를 다 해"하고 손사래를 친다. 어머니의 뒤를 좇아 놀이처럼 바다에 들었던 김 할머니는 "잘 한다"는 주변의 평가가 싫지 않았다고 했다. 그렇게 물질을 배우고 17살에 잠녀가 됐지만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바람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산업인력은 물론이고 군인으로까지 징집된다는 말이 돌자 김 할머니는 내물리듯 청진행 잠녀 모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렇게 떠난 고향, 다시 제주바다를 찾는데 까지 꼬박 60년 넘는 시간이 걸렸다.

청진에서 중국인과 결혼을 하고 6남매를 뒀다. 1967년 1월부터는 중국에서 살았다. 그동안 할머니는 '동남아에 끌려간 뒤 행방불명됐다'고 호적에 줄이 그어졌는가 하면 '조선'국적으로 생활해야 했다. 지금도 '중국'국적으로 제주에 왔다. 그런 순탄치 않은 삶 속에서 할머니는 처음 물질을 할 때 썼던 '족은 눈'을 소중히 간직했다. '눈'을 쓰면 눈앞에 고향 바다가 펼쳐진다. 어린 시절을 보낸 터진목이며 자주 작업을 했던 우뚝개가 보이고, 청진 세소라·세나루 바다도 철썩인다.



김순덕 할머니가 지난 70여년을 함께 해온 '족은 눈'을 들여보이고 있다.

김순덕 할머니가 지난 70여년을 함께 해온 '족은 눈'을 들여보이고 있다. '눈'을 쓰면 눈앞에 고향 바다가 펼쳐진다. 어린 시절을 보낸 터진목이며 자주 작업을 했던 우뚝개가 보이고, 청진 세소라·세나루 바다도 철썩인다.

'소중이를 입고 두툼박·망사리를 가지고' 작업했던 일을 떠올리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진다. 청진에서의 작업도 제주와 비슷했다. 제주 출신 잠녀들이 5~6명씩 팀을 이뤄 물질을 했다. 1960년대 들어 오사카 지역의 제주출신 재일동포들과 함께 물질을 했던 기억도 생생하다. "매해 1월이면 부두에서 만나곤 했다. 아이들이 '오사카 아주마이'라고 부를 만큼 가깝게 지냈다". 김 할머니는 그들을 통해 소식이 끊어졌던 일본 내 친척을 찾기도 했다.

제주는 큰 딸인 진향림 길림성 가무극원 예술총감 및 교장(65)이 다시 찾아왔다. 1990년 한국 방문 기회를 얻은 진 씨가 적극적으로 제주와의 인연을 알렸고 이후 10년 만에 김 할머니는 제주 땅을 밟을 수 있었다. 2007년과 지난해에 이어 이번 해녀축제(15·16일) 참가는 네 번째 제주 방문이다. 그래도 늘 가슴이 설렌다. 진씨는 "제주도에 간다고만 하면 며칠 안절부절 못해 하신다"며 "중국에서도 '눈'을 쓰고 바다에 가실 만큼 물질에 대한 애정도 대단하시다"고 귀염했다. 진씨 역시 청진 바다서 물질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어제 일같이 풀어냈다.

김 할머니는 "이것저것 다 기억을 못해 미안하다"며 "이렇게 들어봐 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의 마음과 진씨의 기억을 담은 춤사위가 해녀축제 일정 중 15일 불턱가요제 무대에 올려 질 예정이다. 그렇게 한 잠녀의 삶이 고스란히 역사와 문화가 된다.